

2012. 8. 6 Vol. 32

# 주간 농업·농촌 동향

## 주요 농정 이슈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발표  
밀 자급기반 확대 추진

## 거시경제 동향

2012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 기획 정보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실태 조사 요지

## 농정 여론 동향

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보리, 마늘 생산량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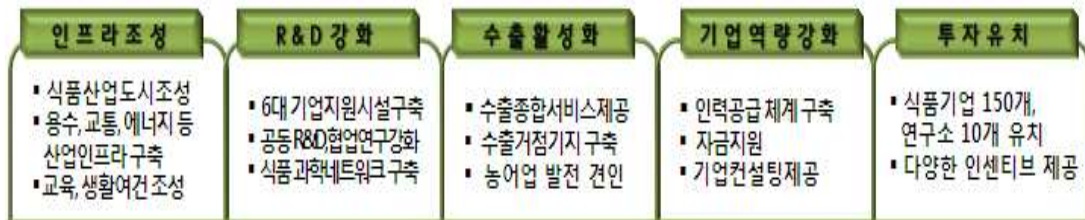
## 주요 농정 이슈\_1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발표

※ 본 자료는 7월 28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청사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발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 개요

- (비전)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
- (핵심원리) R&D중심의 고부가 창출, 수출지향, 네트워크 구축
- (조성 규모) 전북 익산 358만㎡ 규모
  - ※ 식품전문산업단지: 232만㎡(여의도 4/5규모)
  - ※ 배후복합도시: 126만㎡(상주인구 2만여명 규모)
- 식품기업·연구기관의 시너지 제고 및 고부가·수출지향적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대 핵심전략 제시**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은 5,535억 원(식품산업단지)을 투입, 식품기업 매출 15조 원, 일자리 창출 2만 2천명 등의 기대효과 발생

###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 1. 기업하기 좋은 식품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이 최상의 여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식품전문산업단지와 배후복합도시가 결합된 식품산업문화도시(FOODPOLIS)로 구성

- 232만㎡ 규모의 **식품전문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전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년부터 식품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의 형태로 제공**
- 126만㎡ 규모의 배후복합도시에는 종사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타운하우스, 한옥타운, 아파트 등이 들어섬.
- **식품산업단지에는** 용수공급, 교통·물류, 폐수·폐기물 처리, 에너지 공급 등 **기업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 식품기업에 가장 중요한 **용수 공급**은 **진안의 용담댐 1급수를 공급**하며, **폐수처리**는 **지하식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식품폐기물**은 **지하 자동차집 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청정산업단지를 구축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자연채광을 활용하는 공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형 산업단지로 조성**
  - 원활한 물류에 필요한 최상의 교통망 구축(호남 및 서해안고속도로 인접, KTX 개통, 군산항·공항 50km 이내 위치)

## 2. 기업 혁신(이노베이션)시스템 구축 및 고부가가치 창출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자체 **R&D센터, 민간식품연구소, 인근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입주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여
  - 6대 기업지원시설 구축으로 기업의 이노베이션 활동 종합 지원
    - ※ 6대 기업지원시설: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지원센터
  - **푸드폴리스**는 인근 전주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국책식품연구소의 기초·응용기술과 대덕연구단지의 IT·BT기술을 네트워크하여 한국 **'식품 이노베이션 창출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 이러한 식품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들이 국내외 식품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및 협업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농업과 연계성이 크고 성장성이 큰 발효 및 기능성 식품 분야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지원을 집중**

※ 5대 핵심분야 ①발효·전통식품 ②기능성 식품, 바이오·IT 등 융합기술 식품  
③ 천연 첨가물 등 소재식품 ④ 쌀 등 곡물가공 ⑤ 글로벌 기호식품

### 3. 식품수출 거점 기지와 및 농어업과 동반성장 추진

- 수출지향적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출 검역·검사 통합사무소를 설치하여 **식품수출 거점기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수출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상담까지 아우르는 일괄지원시스템 구축
- 수출이 농어업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지 농가와 기업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농·수협을 통한 원료 농산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

### 4. 입주기업 인력 공급 및 역량 강화 추진

- 입주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지원센터와 해당 지자체에 ‘식품인력중개시스템’ 구축·운영**
- 입주기업에게는 다양한 세제·재정 지원과 함께 **농식품부의 모태펀드 등을 통한 자금지원이 강화**되고, 푸드폴리스 주거태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과 컨설팅 추진

### 5. 기업·연구소 투자유치 강화

- ‘15년까지 식품기업 150개, 식품연구소 10개 입주를 목표로 글로벌 식품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본격 전개 예정
- 연구개발 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 성격에 맞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기업위주로 투자유치에 총력
- 입주기업은 국세와 지방세가 5년간 100% 면제되고, 최고 100억 원까지의 보조금(투자·고용·근로정착) 등 다양한 재정지원 혜택

※ 본 자료는 7월 30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국민의 제2주식 밀! 자급기반 확대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 수매자금 확대

○ 2012년 **신곡 수매자금을 확대**해 업체의 **원활한 원료곡 확보** 지원

- 2012년도 밀 수매지원 예산 : (당초) 200억 원 → (확대) 308억 원(연리 3%)
- 이는 '12년산 우리밀 예상 생산량(42천톤 내외)을 전량 수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 □ 대량소비처 확보

-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인해 2%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수요처 확보 노력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밀 제품 공급을 (사)국산밀산업 협회와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
  -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내 1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 등과 협의해 '15년에 최소 100개소까지 확대해 현재와 미래 소비자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
- 수입밀 제품이 사용되는 **군인급식을 우리밀로 대체**하기 위해 '13년도 신규예산을 기재부와 협의 중
  - 연간 군인급식에 사용되는 밀가루 6,543톤을 우리밀로 대체하면 2,400ha에서 생산되는 9,088톤의 알곡이 소비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50억 원 정도
  - 이는 국내 생산농가에 82억 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으며, 해외로 유출될 75억 원의 국부 손실을 방지

- 지난 7.26일 국회에서 개최한 「범국민 우리밀 1kg 먹기운동」 발대식을 계기로 **범국민을 대상으로 소비홍보도 강화**
  - 우선 업계 관계자부터 솔선하여 1kg 먹기를 실천하고,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해 명절선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전국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전략

## □ **새고밀 주정 사용으로 소비 여력 확대**

- '13년에 28천톤을 우리밀 수매가격 36천 원/40kg(kg당 900원)에 주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류협회와 합의. 앞으로도 국내 곡물 수급여건을 고려해 주정용 사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
  - 주정용으로 사용하던 보리를 우리밀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우리밀 수요가 창출

## 거시경제 동향

## 2012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 본 자료는 8월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 전반적 동향

- 201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2010년=100)로 전년 동월대비 1.5% 상승(전월대비 0.2% 하락)

-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과 통신부문은 각각 5.5%, 3.4% 하락하였으나, 의류 및 신발부문은 5.0%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

<연도별 7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2010=100, %)>

| 구분    | 연도별 7월 동향 |      |      |       |       | 월별 동향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2.1 | 2     | 3     | 4     | 5     | 6     | 7     |
| 지 수   | 95.8      | 97.3 | 99.8 | 104.3 | 105.9 | 105.7  | 106.1 | 106.0 | 106.0 | 106.2 | 106.1 | 105.9 |
| 전 월 비 | 0.7       | 0.4  | 0.2  | 0.5   | -0.2  | 0.5    | 0.4   | -0.1  | 0.0   | 0.2   | -0.1  | -0.2  |
| 전년동월비 | 5.9       | 1.6  | 2.5  | 4.5   | 1.5   | 3.4    | 3.1   | 2.6   | 2.5   | 2.5   | 2.2   | 1.5   |
| 전년동기비 | 4.6       | 3.1  | 2.8  | 4.0   | 2.5   | 3.4    | 3.2   | 3.0   | 2.9   | 2.8   | 2.7   | 2.5   |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140.9로 전년 동월대비 1.2% 상승(전월대비 변동 없음)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04.1로 전년 동월대비 1.2% 상승(전월대비 변동 없음)
- 생활물가지수는 104.5로 전년 동월대비 0.8% 상승(전월대비 0.5% 하락)
  - 식품(107.6)은 전년 동월대비 1.2% 상승(전월대비 0.6% 하락)
  - 식품이외(104.4)는 전년 동월대비 0.7% 상승(전월대비 0.4% 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106.2로 전년 동월대비 3.0% 상승(전월대비 2.4% 하락)
  - 신선어개(110.6)는 전년 동월대비 2.0% 상승(전월대비 0.6% 하락)

- 신선채소(87.8)는 전년 동월대비 1.0% 상승(전월대비 1.3% 하락)
- 신선과실(120.7)은 전년 동월대비 7.6% 상승(전월대비 4.2% 하락)
- 기타신선식품(111.9)은 전년 동월대비 5.5% 하락(전월대비 0.8% 하락)

## □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110.0으로 전년 동월대비 1.5% 상승(전월대비 1.6% 하락)
- 농산물(111.9): 전년 동월대비 7.0% 상승(전월대비 2.2% 하락)
- 축산물(105.6): 전년 동월대비 8.8% 하락(전월대비 0.9% 하락)
- 수산물(111.4): 전년 동월대비 2.7% 상승(전월대비 0.4% 하락)

<품목성질별 동향(2010=100, %)>

| 구분    | 품목수 | 가중치    | 2011. 7월 |      |        |                  | 2012. 7월 |      |        |                  |
|-------|-----|--------|----------|------|--------|------------------|----------|------|--------|------------------|
|       |     |        | 지수       |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년 동기비<br>(1~7월) | 지수       |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년 동기비<br>(1~7월) |
| 총 지 수 | 481 | 1000.0 | 104.3    | 0.5  | 4.5    | 4.0              | 105.9    | -0.2 | 1.5    | 2.5              |
| 농축수산물 | 71  | 77.6   | 108.4    | 2.6  | 12.4   | 12.6             | 110.0    | -1.6 | 1.5    | 3.6              |
| 농산물   | 51  | 43.5   | 104.6    | 4.6  | 12.4   | 13.6             | 111.9    | -2.2 | 7.0    | 9.7              |
| 축산물   | 6   | 22.1   | 115.8    | -0.3 | 13.8   | 12.3             | 105.6    | -0.9 | -8.8   | -7.7             |
| 수산물   | 14  | 12.0   | 108.5    | 1.0  | 10.4   | 9.3              | 111.4    | -0.4 | 2.7    | 3.2              |

<7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

단위: %

| 구분    | 전월대비                                                                | 전년 동월대비                                                                       |
|-------|---------------------------------------------------------------------|-------------------------------------------------------------------------------|
| 상승 품목 | 배추(32.8), 시금치(67.8), 무(26.9), 상추(33.1), 닭고기(4.4)                    | 고춧가루(70.3), 쌀(7.7), 파(73.4), 배추(34.6)                                         |
| 하락 품목 | 수박(-30.2), 감자(-32.4), 토마토(-24.1), 참외(-22.3), 돼지고기(-2.1), 양배추(-35.2) | 돼지고기(-17.6), 수박(-22.5), 호박(-55.1), 오이(-34.5), 달걀(-12.1), 상추(-33.5), 참외(-24.7) |

## 기획 정보

##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실태 조사 요지

※ 본 자료는 동향분석실의 “마을회관 이용실태 조사연구” 과제 중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실태 조사 요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 조사개요

- (조사목적) 본 조사는 농촌지역 마을마다 건립되어있는 **마을회관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용자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함.

※ 수시과제: 마을회관 이용실태 조사연구(연구책임: 김동원 부연구위원)

- (기간 및 방법) 2012년 6월 1일에서 6월 25일까지 우편조사

- (조사대상) 현지통신원 전수조사, 625개 마을회관 이용자가 참여

### □ 주요 조사결과

#### 1. 마을회관 운영실태

- (마을회관 운영형태) 85.4%가 경로당과 같이 사용

- 마을회관 운영형태는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이 85.4%로 대부분을 차지, 마을회관 단일형은 14.6% 그쳐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복합형으로 운영되는 추세.
- 마을회관 건물형태는 1층 단일건물 53.3%, 1,2층 복합형 40.0%이며, 건물면적은 132m<sup>2</sup>(40평) 미만이 60.6%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한 편임. 회관이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곳도 20.0%로 나타남.

### <조사 마을회관 기본 특징>

| 구분        | 상세구분         | 빈도  | 비율(%) |
|-----------|--------------|-----|-------|
| 마을회관 건물형태 | 1층 단일건물      | 325 | 53.3  |
|           | 1, 2층 복합형    | 244 | 40.0  |
|           | 단일대지 복합형     | 38  | 6.2   |
|           | 기타           | 3   | .5    |
| 마을회관 운영형태 | 마을회관 단일형     | 74  | 12.4  |
|           |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 | 509 | 85.4  |
|           | 기타           | 13  | 2.2   |

### ○ (마을회관 유희화 정도) 마을회관 단독형 34.3%, 경로당과 복합형 11.2%

- 마을회관이 '잘 활용된다' 응답은 마을회관 단일형 65.8%, 경로당 복합형은 88.8%임. 유희화된 마을회관은 단일형이 10곳 중 3곳 이상 (34.3%)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로당과 복합형은 11.2%로 마을회관 단일형이 활용도가 낮음.
- 마을회관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로는 '노인들 중심으로 활용되어서' 21.8%,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만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17.1%

### <조사 마을회관 기본 특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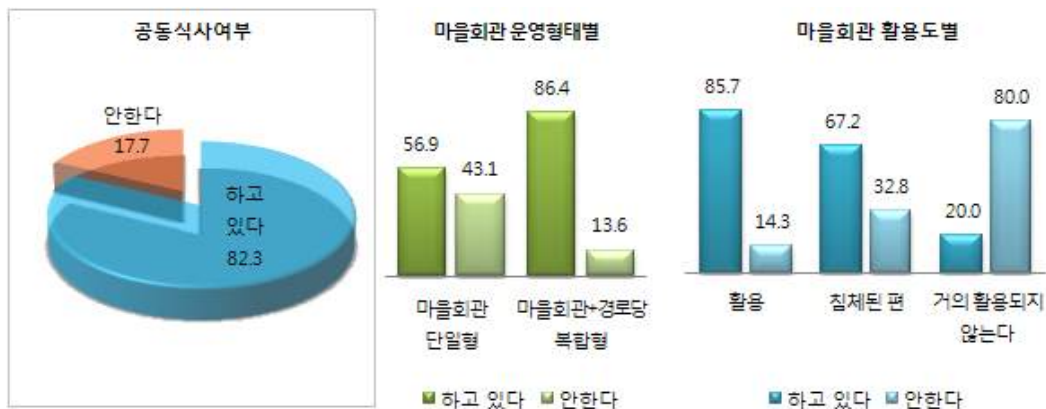


## ○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 “운영한다” 82.3%

-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를 하고 있는 마을은 82.3%로 대부분의 마을에서 공동식사를 운영하고 있음.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합형’이 86.4%로 ‘마을회관 단일형’(56.9%)에 비해 높은 운영률을 보임.

<마을회관 공동식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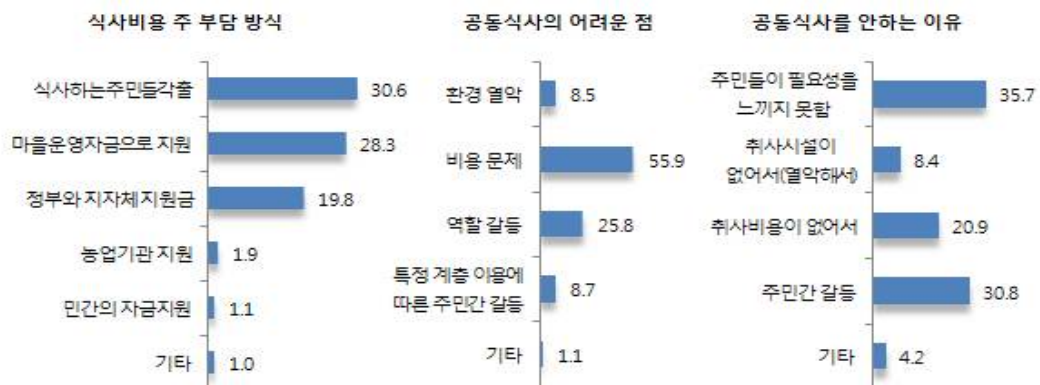
단위: %



- 공동식사에 가장 어려운 점은 ‘공동식사에 따른 비용 문제’ 55.9%, ‘식재료 구입 등의 역할 갈등’이 25.8%로 조사됨.

<공동식사 비용, 어려운 점, 공동식사 안하는 이유>

단위: %



### ○ (마을회관 주 이용층) 노인층과 부녀자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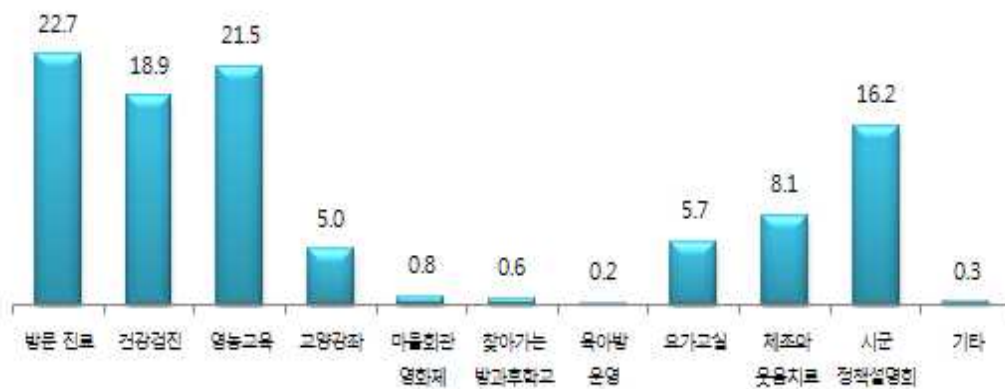
- 마을회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층'(46.4%), '부녀자층'(39.3%)이고, '장년층'(10.0%), '청년층'(2.7%) 등은 이용도가 낮음.

### ○ (마을회관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건강관련 서비스에 집중

- 마을회관에서 연중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해서 시행)는 '방문진료' 22.7%, '영농교육' 21.5%, '건강검진' 18.9%, '시군 정책설명회' 16.2% 등을 꼽아 노인중심의 건강관련 서비스에 집중됨.

<연중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단위: %



## 2. 마을회관 이용자 이용 실태와 만족도

### ○ (마을회관을 찾는 주된 이유) 주민과 대화를 위해 49.2%

- 마을회관을 찾는 주된 이유로는 '주민과 대화(외로움 해소)'(49.2%)와 '각종 경조사와 회의'(33.9%)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마을회관을 찾는 주된 이유>

| 구분        | 난방<br>해결 | 식사  | 주민과대화<br>(외로움해소) | 운동과<br>휴식 | 문화<br>활동 | 각종<br>경조사와<br>회의 | 영농정보<br>획득 | 이용하지<br>않는다 |
|-----------|----------|-----|------------------|-----------|----------|------------------|------------|-------------|
| 65세<br>미만 | 3.0      | 2.2 | 34.8             | 3.4       | -        | 49.1             | 4.9        | 2.6         |
| 65세<br>이상 | 4.8      | 2.0 | 62.2             | 3.7       | 1.0      | 20.1             | 2.4        | 3.7         |
| 합계        | 3.9      | 2.1 | 49.2             | 3.6       | 0.5      | 33.9             | 3.6        | 3.2         |

### ○ (마을회관 이용 시기) 농한기에 집중

- 마을회관 이용 빈도는 연간 이용 일수가 '50일 미만'이 60.4%, 마을회관의 집중 이용 시기는 '겨울철(농한기)'이 72.7%로 가장 많았고, '1년 내내' 이용한다는 응답은 20.7%로 조사됨.

### <마을회관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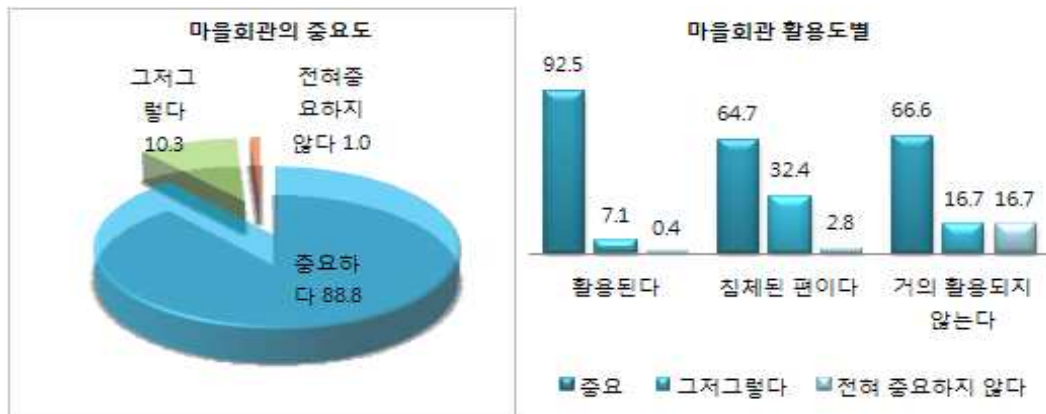
### ○ 마을회관 '주민 소통과 마을발전에 중요' 88.8%, 77.0%가 이용에 만족

-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주민 소통과 마을발전에 '중요한'(매우 포함) 시설이라고 88.8%가 응답.
- 마을회관 이용과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77.0%였으며, '불만족한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23.0%임. 6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불만족 비율이 29.2%로 65세 이상(17.9%)보다 11.3%p 높게 나타남.

#### <마을 주민소통과 마을발전에 대한 마을회관의 중요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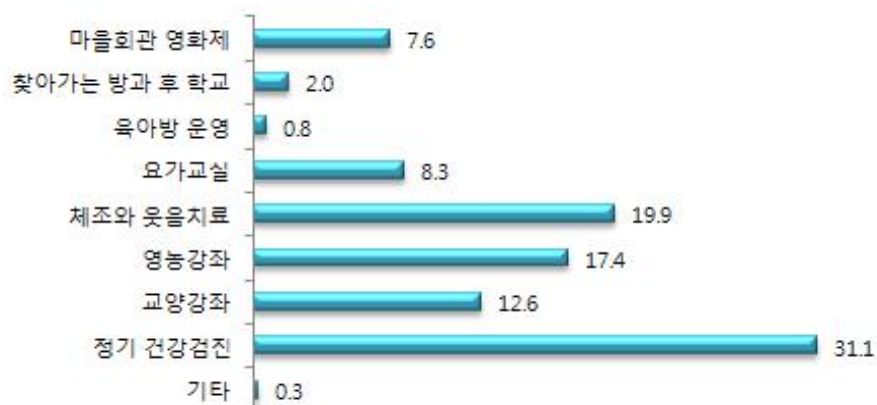


#### ○ 농촌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의 기본기능 중요시해

- 마을회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능에 대한 수요는 '정기 건강검진' 31.1%, '체조와 웃음치료' 19.9%, '영농강좌' 17.4%, '교양강좌'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능 수요>

단위: %



-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강화되어야 할 마을회관의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노인케어센터', '문화센터', '주민편의센터' 순임.
- 반면에 '수익사업센터'와 '도농교류센터' 등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낮은 순위를 나타냄.

## □ 조사결과 시사점

- 농촌주민들의 마을회관 이용실태 조사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마을회관 단일형은 10곳 중 3곳이 유향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함.**
  - 마을회관 85%가 경로당과 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이용층이 노인층이고 운영지원과 제공프로그램도 노인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마을회관이 경로당화되면서 청장년층은 이용에 소외되고 계층간 갈등의 소지도 나타남.
  -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주민의 노령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도농교류의 확대 등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고려해 마을회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 여건과 인구 특성을 감안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 □ 농촌관광 활성화와 관련 리포트

### ○ 농촌관광 활성화는 농촌다워야 하고 지역특색 살려야 효과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고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함.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색과 환경을 감안한 기획과 설계가 필요하고 지역마다 붕어빵 식으로 농촌관광을 추진하지 말고 지역특색을 살려야 성공할 수 있음. 농촌관광의 핵심은 주민소득 향상과 마을의 전통성과 문화를 이어가는 일이므로 소득창출을 위한 체험, 답사, 실습 같은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야 함.  
<경기 안성, 임충빈>

### ○ 관광농원 경영기법 보급, 경영자 교육 등 지원 필요

- 현재 관광농원이나 민박 시설은 대부분 10년~20년 전에 조성한 것이며, 현대식 시설과는 거리가 먼 실정임. 경영자의 전문적인 운영지식이 부족하고 지역마다 특성화가 미흡함. 따라서 관광농원의 시설 보수를 위한 자금지원과 경영기법 보급, 경영자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함.<경남 김해, 김병철>

### ○ 농촌관광 쓰레기 방치 등 부작용 예방 위해 캠페인 실시

- 농촌관광은 농산물 직거래와 체험을 통한 일손부족 해소, 고객확보라는 많은 장점이 있음. 하지만 도시민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 농촌 경관을 해치고 또 음주가무 등으로 바쁜 농민에게 상실감을 주기도 해 언론을 활용한 캠페인이 필요함.<강원 강릉, 송인숙>

### ○ 도시민과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정부 관심 절실

- 농촌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테마가 없어 관광객 유치가 어려

움. 기업체, 부녀회, 관공서가 자연부락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면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것임. 옆 마을은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공하고 회사에서는 마을에 엠프시설, TV 설치 등 문화혜택을 주고 있음. 정부차원에서 자매결연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함.<전남 화순, 나종주>

### ○ 농촌관광 촉진을 위해 5일장을 활성화 시키자

- 농촌관광과 5일장의 전통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첫째, 5일장이 열리는 곳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대형할인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해야 함. 둘째, 5일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좌판과 비가림막 등의 편의시설들을 설치해야 함. 셋째, 5일장이 열리는 장날 하루만이라도 도시 아파트 단지 부녀회와 연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리의 전통 5일장을 살리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지혜가 필요함.<충남 부여, 최영호>

## □ 기타

### ○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준비가 부족하다

- 올해 1월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음. 6년 전에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예고했지만 정부의 늦장 대처와 축산 농가의 무관심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배출된 가축 분뇨들을 처리할 곳이 없음. 계획했던 축분공동처리장 건설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 일부 시군에선 '액비저장조'마저 부족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이 오히려 농촌 환경이 더 악화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의 조치가 필요함.<경기 안성, 임충빈>

### ○ 스마일농어촌운동 성공하려면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야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1월부터 자율·창의·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스마일 농어촌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성과에 의문임.

‘스마일 농어촌운동’의 내용은 농어촌 핵심리더 10만명 육성, 100만명 재능기부자 농어촌 배치 등임. 하지만 문제는 농어촌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임. 이미 시군구나 읍면동에까지 ‘새마을운동’ 조직이 있으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임.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시민운동, 제도, 시책이나 사업을 마련하려면 농어촌의 의견을 먼저 충분히 수렴하고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함.<경기 안성, 임충빈>

#### ○ 농협에 납품하는 농자재회사 담합으로 농민 피해

- 보도에 의하면 농협에 납품하는 비료회사 농약회사들이 담합하여 농민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를 주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음.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자랑하던 농협 자회사들마저 가담하였다니 더욱 한심함. 농협은 농민들에게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임.<충남 부여, 최영호>

※ 본 자료는 7월 30일~8월 3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 농식품부 “시설원예, 미래농업 핵심동력 육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시설원예산업을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여 생산액을 '11년 5조원 ⇒ '20년 9조원, 수출규모 '11년 2억달러 ⇒ 10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의 내용을 담은 시설원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 [주요내용] ▲ 시설원예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년까지 수출전략품목을 재배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중심으로 5,000ha 수준의 대규모 첨단온실 신축지원 ▲ 노후온실의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원예전문단지의 조성 확대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를 통한 경영비 인하 ▲ 우수품종 보급을 통한 종묘비 절감 ▲ 유통부문에서 농협 APC를 비롯한 산지 전문조직과 시설원예 농가간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 촉진.

자료 : 농민신문(2012.7.30).

## □ 농업인 재해보상보험' 도입 논의 활발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업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하는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 전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농작업 재해에 대한 국가적 보장제도 마련을 뼈대로 하는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대표발의. 법안은 정부가 산재보험과 별도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상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7가지를 제시함. 또한 가입 대상자를 농업인 본인뿐만 아니라 농작업에 종사하는 가

죽과 고용농업인으로 포함. 이호중 '너름' 연구기획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농업인 산재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농업노동재해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강조. 그러나 **문제는 예산,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5년간 소요 예산은 1조~3조원으로 추산**되고 정부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보험료의 정부지원 규모나 가입형태,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과 농약중독 같은 농부증의 원인규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음.

자료 : 농민신문(2012.8.1).

## □ 가축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다’

- 소 산지가격이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지난 26일 열린 전국의 가축시장 한우거래 동향을 보면, 예천용궁은 출하된 수송아지가 275마리 중 90마리만 거래, 홍천은 출하된 송아지 가운데 암송아지는 37마리 중 15마리, 수송아지는 104마리 중 65마리만 거래, 순천가축시장에는 **암소가 최저가격인 30만원에 거래**됨. 전문가들은 유찰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큰 의미가 없고, **대규모 유찰 자체가 한우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한다고 설명.

자료 : 축산신문(2012.7.30).

## □ 연내 사료값 인상 최대한 억제

-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사료업체 등 관련업체에 비상, 이에 따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5일 긴급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응방안 논의. 농식품부는 2008년 애그플레이션 때 추진했던 **▲[대응방안 1] 사료 구입자금 지원과 함께 밀·콩·옥수수까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시장을 활용한 수입곡물가격 안정화 방안** 등도 검토기로 함. 또한 **▲[대응방안 2] 국내 부존 조사료 자원 발굴 및 활용** 대책은 국방부 등과 협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비행장과 4대강 주변의 갈대 등을 조사료로 활용할 방침임. 이에 대해 축산물 및 농산물 생산자 단체들은 사료·비료 구입자금 지원 대책과 밀·콩·옥수수 공공비축 확대 대책 등을 환영하며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소비자단체는 원가인상 요인보다 더 많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매점매석하는 품귀현상의 방지를 위한 노력요청.

자료 : 축산신문(2012.7.30).

## □ 농수산물생명자원 암부로 예외 반출 못해

-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수산물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수산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국내 야생종, 재래종, 국가 개발 육성종 등 **주요 농수산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외국인 등이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산물생명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허가** 등을 받도록 해 농수산물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 [기대성과] 이번 법안은 우리 농수산물생명자원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원을 농업자원 외에 수산물생명자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2.7.30).

## □ 중국산 쌀 통상마찰 조짐

- 우리나라가 올해 중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에 대해 중국이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제시해 한·중간 통상마찰로 번질 조짐이 있음**. 올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 MMA 쿼터는 16만 6,070톤으로 우리 정부는 이 물량의 수입을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2월과 6월 두 차례 국영무역 입찰 실시. 하지만 중국측이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제시하여 모두 유찰된 상태. 이는 결국 중국이 자국에 할당된 쌀 MMA 쿼터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무역이득을 극대화

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7월 24일 개최된 제18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MMA제도하에서의 중국산 쌀 수입 관련 상호 협력 및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입찰제도 운영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함. 문제는 대중국 농산물 무역에서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즉, MMA 쌀 논란은 과거 곡물 수출제한조치 사례와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중국에 의존한 농산물 수입이 얼마나 위험하지를 보여줌.

자료 : 농민신문(2012.8.1).

## □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내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법안을 놓고 국회와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충돌.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가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 개정안은 미국 등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및 관련 제품 수입을 곧바로 중단하고, 현지조사를 담당할 공동검역단을 구성해 수출국에 파견하는 내용. 현행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네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정안 상정. 농식품부는 과학적 정당성 없이 서둘러 수입중단 결정을 내리면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고, 분쟁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특히 미국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수입위생조건과는 상충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다가 만에 하나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

자료 : 농민신문(2012.8.1).

## □ 농진청, 2011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2011년산 농산물 소득 결과 24개 농산물 소득 증대)

- 농촌진흥청 '2011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
  - 쌀보리, 착색단고추, 사과, 시설장미 등 58개 작목, 4,264농가의 소득자료
- '10년산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반축성딸기, 반축성수박 등 24개 작목**이고,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대파, 가을배추 등 23개 작목**으로 나타남.
  - 반축성 딸기 소득은 전년대비 43%, 반축성 수박은 30.7 % 증가
  - 대파 소득은 전년대비 58.2 %, 가을배추 소득은 50.6 % 감소
  - **월동작물인 시설채소의 소득증가가 뚜렷**(생육기에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6.2~15.1% 정도 증가, 품질향상에 의한 수취가격 증가)
- 최근 5년 **평균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고구마, 양배추, 오미자, 반축성딸기, 반축성수박 등 36개 작목**이며,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대파, 가을배추 등 11개 작목**으로 나타남.
  - 노지작목인 고구마, 양배추, 오미자는 웰빙 시대에 부응한 소비자들의 수요증가에 의한 가격상승으로 소득 증대
  - 시설과채류인 시설딸기, 시설호박은 단경기에 출하돼 높은 수취가격에 의한 소득 증대
  - **자본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정밀한 재배기술이 요구되는 시설 재배 작목들의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게 나타남.**
- 부부 2인 가족경영 규모에서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 단위 면적당 소득차이가 크게 발생
  - 소득상위 20%인 농가는 평균농가에 비해 1.6배에서 2.1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2.7.31).

## 연구 지원 정보

## 2012년 보리, 마늘 생산량 조사결과

※ 본 자료는 7월 3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보리, 마늘 생산량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 보리

○ **보리 생산량**은 84,525톤으로 **전년(109,210톤)보다 22.6% 감소**

- 쌀보리 작황이 전년보다 호전되어 10a당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전체 생산량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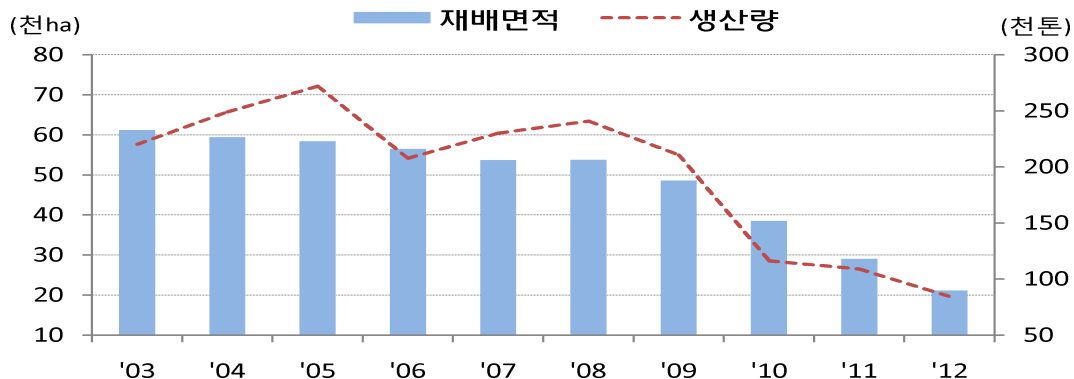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 구 분     | 재 배 면 적(ha) |        |       | 10a당 생산량(kg) |     |      | 생 산 량(톤) |        |       |
|---------|-------------|--------|-------|--------------|-----|------|----------|--------|-------|
|         | '11         | '12    | 증감률   | '11          | '12 | 증감률  | '11      | '12    | 증감률   |
| 보 리     | 29,054      | 21,200 | -27.0 | 376          | 399 | 6.1  | 109,210  | 84,525 | -22.6 |
| · 곁·쌀보리 | 22,060      | 17,452 | -20.9 | 381          | 412 | 8.1  | 83,994   | 71,889 | -14.4 |
| · 곁보리   | 4,591       | 4,750  | 3.5   | 428          | 416 | -2.8 | 19,652   | 19,746 | 0.5   |
| · 쌀보리   | 17,469      | 12,702 | -27.3 | 368          | 411 | 11.7 | 64,342   | 52,143 | -19.0 |
| 맥 주 보리  | 6,994       | 3,748  | -46.4 | 361          | 337 | -6.6 | 25,216   | 12,636 | -49.9 |

○ 시도별로는 전북이 46,012톤으로 전국 생산량 중 54.4%를 차지하였으며 전남이 22,643톤(26.8%), 경남 8,713톤(10.3%)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생산량 추이를 보면,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생산량은 작년에 이어 최저 수준

<연도별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마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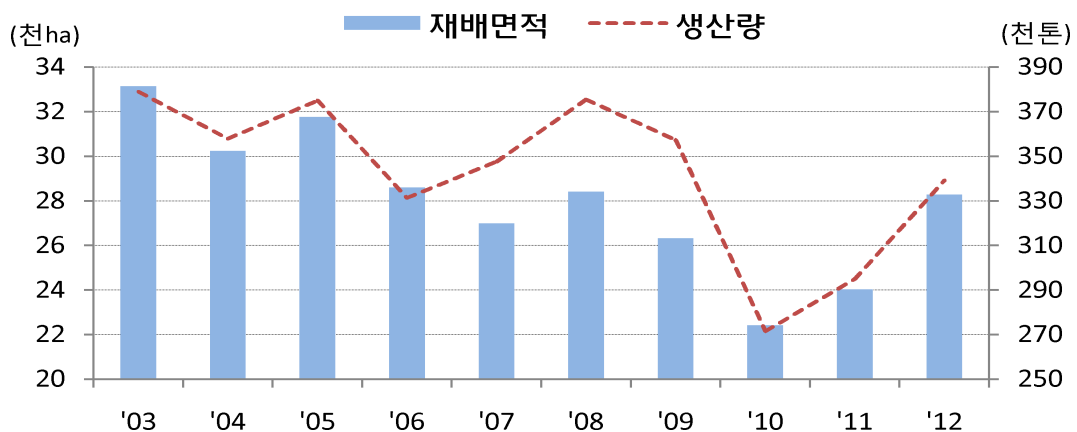
- 마늘 생산량은 33만 9,113톤으로 전년(29만 5,002톤)보다 15.0% 증가
  - 10a당 생산량은 감소하였지만,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구분  | 재 배 면 적(ha) |        |      | 10a당 생산량(kg) |       |      | 생 산 량(톤) |         |      |
|-----|-------------|--------|------|--------------|-------|------|----------|---------|------|
|     | '11         | '12    | 증감률  | '11          | '12   | 증감률  | '11      | '12     | 증감률  |
| 마늘  | 24,035      | 28,278 | 17.7 | 1,227        | 1,199 | -2.3 | 295,002  | 339,113 | 15.0 |
| 한지형 | 5,537       | 6,289  | 13.6 | 790          | 825   | 4.4  | 43,745   | 51,904  | 18.7 |
| 난지형 | 18,498      | 21,989 | 18.9 | 1,358        | 1,306 | -3.8 | 251,257  | 287,209 | 14.3 |

- 시도별 마늘 생산량은 전남이 97,383톤(28.7%)으로 가장 많고, 경남 83,981톤(24.8%), 경북 60,079톤(17.7%), 제주 40,557톤(12.0%) 순임
-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이며, 2012년은 전년보다 재배면적, 생산량 모두 증가

<연도별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